


# 자비실천으로 생명 나누며 일상을 바꾸다

##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 12. 2025년 생명나눔 활동 총결산

**장기기증 희망등록 6100명**
**조혈모세포는 2200명 동참**
**환자치료비 1억원 지원해**
**일면 스님 "자비 현장 응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을 기치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불교적 사회참여의 지평을 넓혔다.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비 지원, 해외 의료물품 전달·구호 활동까지 이어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행보는 '나눔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불교계의 오래된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25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 운동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했다. 환자 개개인의 삶을 직접 살피는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 활동을 한층 강화한 해였으며 생명을 잇는 제도적 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현장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불교적 자비가 어떻게 사회적 언어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한 해였다.

### 흔들림 없이 이어 온 희망등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근간은 단연 장기·조혈모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있다. 올해에도 전국 사찰과 불교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희망등록 캠페인을 이어 가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켰다. 수계법회, 법회 현장, 불교박람회, 연등행렬 등 신행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알리는 방식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강점으로 꼽힌다.

올 한 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장기 3200여 명, 조직 2900여 명에 달한다. 70여 차례 진행한 캠페인에서 거둔 성과다. 조혈모 희망등록의 경우 올해 45차례 진행된 캠페인에서 2200여 명을 동참시켰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희망등록 캠페인은 단발성 홍보를 지양하고 장기기증 이후의 의미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를 통해 '등록 숫자' 중심의 성과를 넘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주력했다.

### 치료비 지원 1억원…생명나눔의 얼굴

2025년 활동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분야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다.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와 치료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웃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치료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이어 갔다. 올 한해 환자 치료비 지원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특히 치료비 지원 사례를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이 맞물린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조명하려고 노력했다. 치료비 전달과 함께 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생명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불교계 안팎에 꾸준히 알렸다.

### 국경을 넘어 이어진 생명 연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2025년 활동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호·의료물품 지원 활동 역시 한층 확대됐다. 아시아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의료 접근조차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명나눔의 손길을 전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과 연중 공동캠페인으로 진행된 해외구호 활동은 단기적 물자 지원을 넘어, 현지 상황에 맞는 의료 지원과 생필품 전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6월 9~14일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을 직접 찾았다. 불교계 국제구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전달되도록 힘썼다.

일면 스님은 해외구호와 관련해 "부처님 가르침에는 국경이 없다"며 "고통받는 생명이 있는 곳이 곧 수행의 도량"이라고 강조해 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 활동이 단편적인 구호를 넘어 불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연대 실천임을 분명히 했다.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 · 교육

이밖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대 활동과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생명나눔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활동가들과 자발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며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썼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명윤리 담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 "숫자보단 생명 하나하나를 바라봅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25년을 돌아보며 "성과를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한 명, 치료비를 받은 환자 한 사람, 해외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 한 명, 그 각각이 모두 하나의 우주와 같은 생명"이라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바라보는 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이란 본래 사명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자비 현장에도 응답할 것"이라며 "불교계 유일이란 수식어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책임감 있게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6년을 향해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송년사 이사장 일면 스님

### 생명을 살리는 약속, 더 단단히 이어 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많은 아픔과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만큼 생명을 향한 관심과 연대가 절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흔들림 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5년에도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라는 책무를 가슴에 새기며 생명나눔 운동을 이어 왔습니다. 사찰과 법회 현장, 불교 행사 곳곳에서 장기기증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가장 큰 보시이자 수행임을 꾸준히 전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은 환자 치료비 지원 활동으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병상 곁의 작은 도움이 다시 삶을 이어 갈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며 자비 실천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장기기증이 미래의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라면 치료비 지원은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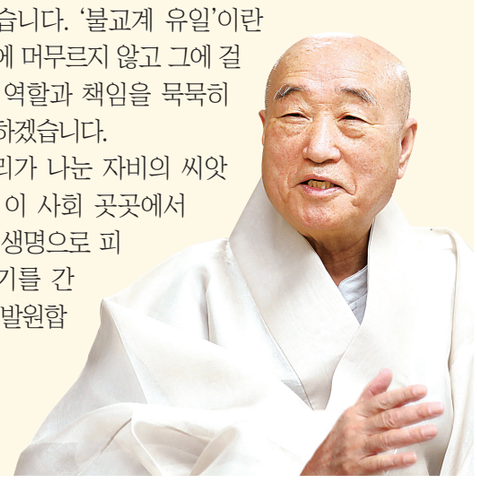
해외구호 활동 역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 갔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기본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부처님 가르침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후원해 주신 불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생명존중의 뜻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의 신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임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과를 드러내기보다 고통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을 선택해 왔고 그 선택이 쌓여 오늘의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는 본래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은 더욱 책임 있게 이어 가고 환자 치료비 지원과 해외구호 활동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교계 유일'이란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자비의 씨앗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잠시 내려놓은 커피 한 잔
그 따뜻함을 하윤이에게 전해주세요

ARS 후원 060-703-1133
• 전 화 1 통 화 에 5 천 원 후 원 •

태어난지 두달 무렵
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해 병원을 찾은 하윤이는
근육이 점점 위축되어 대부분 두돌을 넘기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에
하윤이의 치료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정기 CMS 후원 신청 02-734-8059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